터키발 공포…회복하던 코스피 2240대 급락

34.34포인트 하락…1년 3개월만에 최저치
바이오주 폭락으로 코스닥 4% 가까이 떨어져

'터키 쇼크'가 국내 주식 시장을 강타하면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터키발 정치·금융 불안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지역 투자자들도 터키발 불안감이 얼마나 지속될 지 주시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13일 터키발 공포감에 3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2240대로 주저앉았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 4일(2,241.24)이후 1년 3개월여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코스닥 지수도 바이오주 급락의 영향으로 4% 가까이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34포인트(1.50%) 내린 2,248.45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6.36포인트(0.72%) 내린 2266.43로 출발한 뒤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리며 낙폭을 키웠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724억원을 투매한 외국인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이 1027억원을 사들였지만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터키 은행규제감독기구(BDDK)는 이날 터키 은행과 외국인 간의 스와프, 현물, 선물환 거래를 은행 지분의 50%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터키와 미국 간 갈등이 부각되며 터키 리라화 가치가 지난 10일 하루 만에 20% 넘게 급락한 데 따른 조처다.

터키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국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 러시아 시장 불안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삼성전자(-0.77%), 셀트리온(-4.23%), 삼성바이오로직스(-3.88%), POSCO(-2.74%), 현대차(-1.98%), 네이버(-2.08%) 등 대부분이 내렸다. 10위권에서는 SK하이닉스(0.40%)만 소폭 올랐다.

업종별로는 모두 다 하락한 가운데 비금속광물(-4.25%), 의약품(-3.90%), 증권(-3.64%)의 낙폭이 컸다.

오른 종목은 83개, 내린 종목은 776개였고 39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9.16포인트(3.72%) 내린 755.6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포인트(0.52%) 내린 780.69로 개장한 뒤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1억원, 100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48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4.37%), CJ ENM(-2.73%), 신라젠(-8.46%), 메디톡스(-5.07%) 등 대부분 내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터키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전장보다 달러당 5.0원 오른 1,133.9원으로 거래가 끝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48.45 (-34.34)	↑ 금리 (국고채 3년) 2.05 (+0.01)
↓ 코스닥 755.65 (-29.16)	↑ 환율 (USD) 1133.90 (+5.00)

해양도시가스, 초등학생 대상 'GIST SCIENCE 캠프'

해양도시가스(대표 김형순)는 지난 11일 GIST(광주과학기술원)와 GIST 캠퍼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GIST SCIENCE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에는 초등학생 40명이 참여, 환영 및 친해지기를 시작으로 열감지 슬라임(Slime, 액체괴물 또는 점성이 있는 점토 장난감, 즉 열감지 슬라임이란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액체괴물), 도시가스 체험스쿨, 빨대피리, 골전도 이어폰(뼈를 진동시켜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 금속 탐지기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캠프는 해양도시가스와 GIST, 광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회공헌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양도시가스는 지난해 2년간 1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해 배움마당 운영비용 지원과 가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김형순 대표는 "이번 참가 학생들이 과학캠프를 통해 미래를 향한 창의적 과학기술의 요람인 GIST를 체험하고, 광주지역 미래인재의 가스 안전의식 함양 및 에너지산업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구입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관 대회의실에서 에버랜드와 마일리지 제휴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회원이 11월부터 2월까지는 5400마일, 평·성수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6000마일을 차감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의 정상가는 성인 주간 1일권 기준 5만4000원이다. 이번 제휴 프로그램은 성인 주간권 구매 시에만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및 에버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이 광주·전남愛사랑카드 2만번째와 아너스카드 5000번째 고객을 초청해 행사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청년 영농정착 사업대상자 농림부, 전남 60명 추가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 선발자 400명 중 시도별 선발 인원은 전남 60명을 비롯한 경북 63명, 전북 61명 등 총 400명이다.

영농 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년 차 43.5%, 2년 차 8.5%, 3년 차 3.8% 순이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전남愛사랑카드 2만번째 고객 초청 기념행사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Card 5000번째 고객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3일 오후 광주·전남愛사랑카드 2만좌 및 광주·전남愛사랑 아너스 카드 (Honors Card) 5000좌 돌파를 기념해 각 카드의 2만번째와 5000번째 신규 고객을 광주은행 본점에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월 출시한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광주·전남愛사랑 플래티늄카드', '광주·전남愛사랑 아너스(Honors)카드' 3종은 출시 이후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난 8일 3종 합계 2만좌 돌파 및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Card 5000좌를 돌파했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는 카드이용금액의 0.5%를 고객이 선택한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향사랑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카드로 출시 이후 7월말 현재까지 누적된 기부예정금액은 광주시 2400만원을 포함해 총 5200만원에 달한다. 광주은행은 올 연말까지 적립된 금액을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Card의 경우 출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라운지 무료음료제공, 호텔 무료사우나, KTX무료주차 서비스가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및 부산지역 출향민들에게도 카드 사용으로 고향사랑까지 실천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전남愛사랑카드 신규가 2만좌를 돌파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은행 KJ카드는 고객님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카드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2분기 6871억 영업손실

6년만에 3분기 연속 적자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연결 기준 8147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작년 상반기 2조3097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올 2분기에만 영업적자가 6871억원에 달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해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3분기째 손실을 냈다.

이처럼 3분기 연속 영업적자는 지난 2012년 2분기(2011년 4분기, 2012년 1·2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전은 올해 적자 원인으로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을 꼽았다.

올해 상반기 유가가 작년 대비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오르는 등 연료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조원(26.7%) 증가했다.

또 원전 정비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정지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 구매가 2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전은 발전원가가 비싼 LNG로 생산한 전력을 민간발전사로부터 더 구매해야 한다.

이외에 신규 발전소 준공, 송전선로 신·증설 등 전력설비 투자로 감가상각비가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반기 전기판매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4.1%) 늘었지만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4280억원 줄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토지 거래가 자주 이루어 지는 곳!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
투자 하실분과 일하면서
배우실 분을 모십니다.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